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수세인트마리
파견대학	알고마대학	기간	19.01.15~19.02.04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 주세요.</p> <p>캐나다의 작은 소도시 수세인트마리에 위치한 알고마 대학은 생각보다 무척 작았고 학교에 근무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은 정말 친절하셨다. 규모가 작아 이동수업이 있어도 금방 도착할 수 있어 좋았지만 점심식사를 하는 곳은 너무 북적거리어서 조금 힘들었다.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라고 듣고 갔지만 실제로 겪으니 정말 많이 와서 조금 힘들기도 했고 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수업시간이 빡빡하고 해가 금방 지기 때문에 시간이 안나 이용해 본 적은 없었다.</p>
수업	<p>수업내용, 수업방법, 분반여부,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 주세요.</p> <p>수업은 수준별로 2개반을 나누어 수업하기도 하고 전체 수업을 하기도 했다. 크게 문법, 듣기, 읽기, 발표 수업으로 이루어졌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문법을 제외하곤 수준별로 나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3주라는 짧은 시간동안 영어 실력을 향상시켜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얼른 그만두길 바란다. 3주는 너무 짧았고 학교 수업에서 얻는 영어 공부보단 오히려 홈스테이와의 대화를 통해 얻게 되는게 많았고 수업 말고도 여러 액티비티 활동이 많기 때문에 수업의 흐름이 많이 끊기게 되는 느낌을 받았다. 과제는 딱 한번 있었고 어렵지는 않았다. 수업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지만 8시30분에 첫 수업시작이라 축 처지는 감이 있기도 했다. 그러나 선생님들이 재밌게 수업을 하려 노력하고 학생들이 그에 잘 따라가면 나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한다.</p>
Activity	<p>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에 대해 서술해 주세요.</p> <p>-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등</p> <p>Activity는 스키, 개썰매타기, 스시, 알파카 농장 등 정말 많이 이루어졌고 추가비용은 따로 없었다. 스키바지가 없어서 걱정했지만 홈스테이가 빌려주는 경우가 많아 따로 꼭 챙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스케이트 또한</p>

	<p>홈스테이에게 빌렸었다. 겨울에 할 수 있는 활동을 전부 다 해보고 왔다는 생각이 들고 캐나다 스키는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굉장하고 절대적으로 추천한다. 스케이트로 재미있었지만 날씨가 너무 추워서 2바퀴 밖에 돌지 못했고 스노우슈잉 활동은 시간적인 문제로 다같이 체험하진 못했는데 나는 홈스테이 가족과 주말에 같이 스노우슈잉 활동을 했다. 날씨가 너무 추워서 제대로 즐기진 못했지만 나름 신선한 경험이었다.</p> <p>활동을 하면서 주의해야 할 점은 야외에서 하는 활동이라면 정말 따뜻하게 입고 가야한다. 진짜 이정도면 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껴입어야 제대로 즐길 수 있다.</p>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현지 기후 및 유의점</p> <p>정말 정말 정말 상상 이상으로 추웠다. 기온이 보통 -25이하였고 심한 날에는 체감온도 -50까지 내려갔다. 부츠와 장갑은 무조건 필수였고 정말 추웠던 날은 장갑을 껴는데도 손이 얼어 아팠다. 핫팩을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 히트텍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한다. 롱패딩과 숏패딩 하나를 가져갔는데 롱패딩이 불편할 까봐 스키나 스케이트 탈 때는 숏패딩을 입고 나머지날은 무조건 롱패딩을 입었다. 캐나다에 가기 전 코트를 가져갈까 고민했던 내가 정말 한심하다. 패딩을 입어도 추운 날씨다.</p>
안전	<p>현지 안전 상황</p> <p>대부분의 사람들이 친절하여 위험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단지 눈이 많고 길이 미끄럽기 때문에 미끄러지는 것만 조심한다면 괜찮다. 버스타는 것이 어려워도 버스기사님들이 다 친절하여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p>
숙소	<p>학교기숙사() 홈스테이(○) 외부 숙소() 기타()</p> <p>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p> <p>처음에는 홈스테이를 이용하는 것이 너무 걱정 되었는데 막상 가니까 정말 편했었다. 말이 안 통할까봐 걱정한 것과 달리 내 홈스테이는 홈스테이 경험이 많아서 규칙도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고 손짓과 같이 말씀해 주셔서 알아듣기 수월했다. 내 방에 책상과 침대, 옷장은 개인적으로 쓸 수 있었고 우리집의 경우 지하에 위치한 화장실을 나 혼자 사용했기 때문에 더 편했던 것 같다. 부부침실을 제외 한다면 모든 시설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었고 지하거실에 티비를 이용해 영화도 보기도 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식사</p>	<p>학교식당() 홈스테이 (○) 외부식당 (○) 기타()</p> <p>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 평일 아침은 주로 시리얼과 토스트를 해먹었다. 나는 직접 아침을 차려먹을 수 있도록 도와줬는데 차려주시는 것보단 이게 훨씬 편했던 것 같다. 급한 날은 아침을 먹지 않아도 되고 내가 먹고 싶은 대로 골라 먹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주말에는 아침 겸 점심으로 브런치를 해주셨는데 팬케익등을 먹었다. 점심은 도시락을 싸갔는데 주로 샌드위치를 먹었지만 전날 먹은 저녁이 많이 남았을 경우나 내가 외식 해서 내 몫의 저녁이 남았을 경우 전날 저녁을 싸주셨다.</p> <p>저녁은 주로 홈스테이랑 같이 먹었다. 캐나다식의 저녁을 해주셨는데 나는 원래 느끼한 걸 좋아해서 그런지 잘 맞았다. 특히 프로그기는 또 다시 먹고 싶을 정도로 맛있었다. 간혹 밖에서 사먹었던 적도 있는데 레스토랑의 경우 팁을 내야하고 세금을 후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예상한 가격보다 더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 보통 한 끼를 사먹는데 한화로 비싸면 2만원, 저렴하면 15000원정도 나온 것 같다.</p>
<p style="text-align: center;">교통</p>	<p>통학방법, 시내교통 관련</p> <p>나는 학교에서 집까지 거리가 멀어서 버스를 2번 타야 했다. 버스 루트가 양 방향이 아니라 한방향으로 밖에 없어서 등교할 때는 1시간이 걸렸고 하교 할 때는 약 30분 정도 걸렸던 것 같다. 버스타는 법은 첫날 학교에서 잘 알려주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지만 주말과 평일에 버스 시간이 바뀌는 것이 조금 헷갈렸다. 그것 말고는 버스기사들이 모두 친절하여 어렵지 않았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여행자보험	1,740,100	출국 전 사전 납부
식비	120,000(\$150)	저녁, 군것질 등
쇼핑	297,000(\$350)	메이플시럽, 초콜릿 등 기념 선물
기타	160,000	옷 등 체크카드 사용
합계	577,000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해 주세요.

일단 따뜻한 옷을 정말 많이 준비하길 바란다. 옷을 많이 가져가라는 것이 아니라 히트텍, 장갑, 목도리 등 방한 용품을 준비해 가고 핫팩은 필수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수세인트마리는 정말 작은 도시여서 쇼핑을 할 수 있는 곳이 정말 적다. 이번에 항공기 캔슬문제로 토론토에 하루 머물게 되어 그나마 시내 구경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외식을 자주 하기 보단 홈스테이와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을 추천한다. 3주라는 짧은 시간동안 친구들과 식당에서 사먹는 것도 좋지만 식사자리 만큼 홈스테이 가족들과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생각한다. 낮에는 학교에서 온종일 시간을 보내니까 저녁만큼은 홈스테이와 얘기도 하면서 회화실력을 쌓길 바란다. 그리고 선물을 사면 정말 좋아하신다. 한국을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가면 좋을 것이다.

출국전에는 한식이 생각날 것 같아서 컵밥과 햇반, 김 등을 사갔는데 컵밥을 점심으로 한번 먹은 것을 제외하면 먹을 일이 없었다. 내가 그곳 음식에 적응을 잘 한 것도 있고 매번 식사와 간식거리를 챙겨주셔서 따로 한식을 먹을 시간도 없었다. 요리를 잘한다면 그곳에서 홈스테이에게 한국음식을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교환학생을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단기어학연수 기회는 정말 축복과 같다고 생각이 들었다. 이번 연수를 통해 나는 교환학생을 더욱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도전해볼 생각이다. 영어를 배우러 가기 보단 문화체험을 하자는 생각으로 갔더니 정말 재미있는 3주였고 떠날 때는 정말 슬펐다. 홈스테이는 나에게 정말 잘 해주었고 기회가 된다면 여름에 다시 찾아갈 계획이다. 겨울에 방문하여 즐길 수 있는 활동이 적어 아쉽지만 후회없는 3주라고 생각이 든다. 식당에서 외식을 하는 것을 제외하면 생활하기에는 물가도 저렴하고 시골이라 그런지 사람들도 무척 친절하여서 좋았다. 떠나기 전에는 동양인 차별이 가장 걱정되었는데 다행스럽게도 나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토론토에 하루 머무는 동안 같이 간 친구들의 경우 동양인 차별을 겪은 경우도 있어 차별이 아예 없다고 하긴 어렵지만 적어도 수세인트마리 사람들의 경우 생각이상으로 친절하고 사교적이다. 모르는 사이여도 지나가다 눈이 마주치면 인사를 하게 된다. 그리고 영어 말하기는 늘었다는 생각이 들진 않지만 듣기는 매우 늘었다. 아무래도 홈스테이랑 시간을 보내다보니 듣는 귀가 조금은 트인 것 같다.

캐나다 단기어학연수라는 좋은 기회를 얻어 좋은 경험도 많이 쌓았고 향후 내 미래에도 분명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수세인트마리는 도심과 떨어져 있어서 다음에 또 기회가 생긴다면 도심에서 머물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교통적인 면이나 생활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불편함은 있기 때문이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처음 수세인트마리 공항에 도착하여
홈스테이가족과의 만남.



운 좋게 토론토에 하루 머물게 되어
찍었던 토론토 시청 풍경



개 썰매. 개들이 힘들어 보여서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음.



zach과 친구들. 스케이트타는
날이었는데 너무 추워서 힘들었음.



알파카농장 방문. 먹이를 직접줄 수
있었는데 알파카는 귀여웠지만 냄새가
조금 심했다..



학교 일정에 속했던 봉사활동.
한복종이접기를 알려주는 활동을
했었음. 애기들이 잘 따라와줘서
뿌듯했음.